2015년 10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

아름다운 길(道)
美しい道

사람이
人が

다니라고 만든 길은
行き来しようと作った道は

몸만 옮겨놓지 않는다.
体だけ移すのではない

몸이 가는대로 마음이 간다.
体が行くままに、心が行く

몸과 마음이 함께 가면
体と心がともに行けば

그 길은 길이 아니라
その道は道でなく

도(道)이다.
道路だ

- 고운기의《삼국유사 길 위에서 만나다》중에서 -
- コ・ウンギの<三国有志道のために会う>より -

*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 誰かが最初の一歩を踏み出し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생깁니다.
沢山の人が歩けば道が生じます

그 곳이 숲이면 숲길이 되고, 그 길에 꽃을 심으면
そこが森なら林道になり、その道に花を植えれば

꽃길이 됩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들이 만나
花道になります。ある日、いい人に会い

마음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
心を分けて、夢と希望を歌えば

아름다운 도(道), 꿈길이 됩니다.
美しい道。夢の道になります。

희망의 길이 됩니다.
希望の道です

(2011년 10월3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3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다니다
[자동사]

通う.
(왕복) (一定の場所を)行き来する.
[타동사](ある目的で)歩き回る; …して回る.
옮기다
[타동사]
[‘옮다1’の使役] (자리를) (物の位置を)変える; 移...
(거처 등을) 移転する; 移す; 引き移す.
(행보·실천) 転ずる; 移す.

2015년 10월 13일 오늘의 아침편지

기억 저편의 감촉
記憶の向こう側の感触

나는 아무것도
私が、なにも

기억하지 못하기에
記憶できないから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何も忘れません

내가 들은 기억이 없는 멜로디와 목소리를
私が聞いた記憶がないメロディーと声を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決して忘れません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 애정을
私が受けた記憶がない愛情を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決して忘れません

내가 쓰다듬은 동물들의 감촉도
私が、触った動物たちの感触も

내가 했던 수많은 놀이도 기억하지 못하기에
私がした、数多くの遊びも記憶できないから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決して忘れません

- 마리우스 세라의《가만히, 조용히 사랑한다》중에서 -
- マリウス・セラの〈静かに、そっと愛する〉より -

* 세상에 태어나
* 世の中に生まれて

어머니가 처음 안아주던 감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母が初めて抱いてくれた感触を記憶できません

그러나 그때의 그 편안함과 따뜻함이 아스라한 기억 저편의
しかし、その時のその平安さと温かさが遥かな記憶の向こう側の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우리의 정서와 품성을 만들고,
魂の深いところに刻印され、我々の情緒と品性を作り

그 너머의 무의식과 본성까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その向こうの無意識と本性まで支配しています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 이전에 받았던
我々は記憶できないが、記憶以前に受けた

사랑과 냄새와 목소리와 어루만짐이
愛と香りと声といたわりが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今日の私をあるようにしました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だから忘れません。

(2011년 10월7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7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저편 (—便)
[명사]あちら; あちら側; 向こう; 向こう側.(=저쪽)(→이편)
쓰다듬다
[타동사]
(손으로) (手で)なでる; さする; なでさする.
(달래다) なだめる; すかす.
동물 (動物)
[명사][생물] 動物.
아스라하다
[형용사]
(距離などが)遥か遠い.
(記憶などが)かすかだ.[준말]아스랗다.
정서 (情緒)
[명사]
情緒; 情操.
[심리] 情動.(=정동(情動))
품성 (品性)
[명사]品性.
어루만지다
[타동사]
なでさする; なでる; さする.
いたわる; 慰撫する.

2015년 10월 14일 오늘의 아침편지

때로는 마음도 피를 흘린다
時には心も血を流す

지난 20세기의 화두가 몸이었다면
過ぎ去った20世紀の話頭が体だったなら

이제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마음입니다.
これから21世紀の話題は当然心です

마음의 흐름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心の流れが体にも影響を与えます

마음은 마음으로 부둥켜안고 이해해야 합니다.
心は心で抱きしめて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음의 약은 마음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
心の薬は心です。石につまずいて転べば

무릎에 피가 납니다. 때로는 마음도
ひざに血が出ます。時には心も

피를 흘립니다.
血を流します

- 정도언의《프로이트의 의자》중에서 -
- チョン・ドオンの〈フロイトの椅子〉より -

* 무릎에서 나는 피는
* ひざから出る血は

약을 바르거나 닦아내면 됩니다.
薬を塗ったり洗えばよいです

그러나 마음이 흘리는 피는 그런 방식으로
しかし、心が流れる血はそういう方法で

안됩니다. 가슴에 박힌 못, 상실, 변심, 절망,
はいけません。胸に刺さった釘、喪失、変心、絶望

좌절, 우울, 분노, 울화, 공포... 우리 마음에 피를
挫折、憂鬱、憤怒、癇癪、恐怖…我々の心に血を

흘리게 하는 상처들입니다. 특효약은 각자의
流すようにする傷です。特効薬は各自の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가
心の中にあります。だから'心の勉強'が

필요합니다. 그에 이르는 길이
必要です。それに至る道が

기도와 명상입니다.
祈りと瞑想です。

(2011년 10월13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13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화두 (話頭)
[명사]
話頭; 話のいとぐち.
[불교] 禅院で; 参禅修行のための話題(...
부둥켜안다
[타동사]抱き締める; 抱き込む.
石につまずいて転倒する 발음 재생 (표제어:걸리다)
돌에 걸려 넘어지다
울화 (鬱火)
[명사]心火; 癪; 癇癪; 鬱怒.
공포 (恐怖)
[명사]恐怖.

2015년 10월 15일 오늘의 아침편지

우주의 제1법칙
宇宙の第1方式

모든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全ての成功には理由がある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蒔いたとおりに収穫する。蒔いたとおりに収穫することは

씨 뿌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줄여서
植え付けの法則、原因と結果の法則、略して

인과의 법칙이라고 한다. 씨 뿌림의 법칙은
因果の法則という。植え付けの法則は

우주의 제1법칙이다. 우주의 제1법칙이기
宇宙の第1法則だ。宇宙の第1法則

때문에 성공의 제1법칙이다.
だから、成功の第1法則だ

- 김용욱의《몰입, 이렇게 하라》중에서 -
- キム・ヨンウクの<没入、そうしなさい>より -

* '뿌린 대로 거둔다.'
* '蒔いたとおりに収穫する'

너무 당연하고, 너무도 평범한 진리인데
とても当然で、とても平凡な真理だが

간혹 잊고 지냅니다. 중요한 것은 씨뿌리는 계절을
時々忘れて過ごします。重要なことは種植えの季節を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씨앗이 아무리
逃さないことです。時を逃せば、種がいくら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多くても意味がありません。時を逃さず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하늘이 돕습니다.
種を植えれば、収穫は神様が助けます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それが宇宙の法則です

(2011년 10월5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5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거두다
[타동사]
(散らばったものを)集め収める; 取り入れる. [준말]걷다[3].
(結果·成果を)得る; 収める.
(징수) (金などを)取り立てる. [준말]걷다[3].
줄이다

[타동사][‘줄다’の使役] 減らす; 少なく[小さく]する; 縮め...
간혹 (間或)
[부사]時折; 時時; 時たま; たまに; 間間.[준말]혹(或).

2015년 10월 16일 오늘의 아침편지

사랑은 말합니다
愛は言います

사랑은 말합니다.
愛は言います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条件なくあなたを愛します"

사랑은 말합니다.
愛は言います

"당신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あなたは今のままでいいです"

이런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な言葉だけが私たちを治癒できます

이런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このような言葉が我々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る

유일한 길입니다.
唯一の道です

- 바이런 케이티의《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중에서 -
- バイロン・ケイティの<私は今誰を愛するか>より -

* 사랑은 또 말합니다.
* 愛はまた言います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変わらずあなたを愛します"

세상은 변합니다. 세월따라 사람도 사랑도 변합니다.
世の中は変わります。年月によって人も愛も変わります

그러나 누군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しかし誰か変わらない信頼で'今のままの私'を

사랑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愛してくれたら、それより大きな祝福はありません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全ての愛が、すべて去っても最後まで残って

따뜻이 바라보고 쓰다듬고 어루만지면
温かく眺めて撫でて、いたわれば

모든 '아픈 곳'이 녹아내립니다.
全ての'痛いところ'が解けます

치유의 시간이며, 하나 되는
治癒の時間であり、一つになる

순간입니다.
瞬間です

(2011년 10월4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4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쓰다듬다
[타동사]
(손으로) (手で)なでる; さする; なでさする.
(달래다) なだめる; すかす.
어루만지다
[타동사]
なでさする; なでる; さする.
いたわる; 慰撫する.

2015년 10월 17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오진영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オ・ジニ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숲이 숨쉰다
森が息づく

아마도 숲이 사람을
おそらく、森が人を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까닭은
新しくしてくれることができる訳は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森に行かなくても、人々の心の中で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すでに森が息づいているからだろう

- 김훈의 《자전거여행1》 중에서 -
- キム・フンの<自転車旅行>より -

* 모두의 마음속에는 숲이 있습니다.
* 皆の心の中には森があります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의 숲을 들여다 보세요.
ただ眼を閉じて、私の中の森を眺めてください

저의 숲에는 다람쥐가 뛰어놀고 따사로운 가을볕이
その森には、リスが遊んだり、温かい秋の日差しが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립니다. 당신의 숲은
木の葉の間に降り注いでいます。あなたの森は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숲은
どんな姿をしていますか？あなたの森は

지금 어떤 계절인가요?
今どんな季節ですか？

숲
[명사](수풀의 준말) 林; 森; 茂み; 叢林.
숨
[명사]
(호흡) 息; 呼吸; 息吹[아어(雅語)].
(야채의) (野菜の)みずみずしさ.
쉬다4
[타동사]呼吸する; 息をする; 息をつく.
아마도
[부사] '아마²' の強勢語: たぶん; 恐らく(は).
쏟아지다
[자동사]

一度にどっとこぼれ出る.
降りしきる; 降り注ぐ; あふれ出る; ほとばしる.
あふれる.